

최태지 등 발레단장 물망... 오늘 2명 압축

광주시립예술단장 인선 막바지
시·단체 회의 거쳐 시장 추천
창극단, 2명 중 최종 위촉 남아
오페라단, 내달 4일까지 공모

공석 상태인 광주시립발레단과 창극단 예술감독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하반기 출범하는 오페라단도 최근 예술감독 공개 모집 공고를 내며 본격적인 창단 작업에 나섰다.

특히 광주시립발레단의 경우 국내 발레계 스타인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이 후보 3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알려져 최 전 단장이 발레단을 이끌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김철승, 이하 문예회관)에 따르면 시립발레단장 후보로 추천된 사람은 현재 최 전 단장 외에 보스턴 발레단 등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마린스키 극장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러시아 출신 발레마스터, 현 발레단 지도위원 등 모두 3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레단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공모제 대신 청빙제를 통해 신입예술감독을 뽑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빙제는 광주시와 예술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술감독 후보자를 선정하고 시장이 최종 위촉하는 방식이다. 청빙위원회에서는 5명의 감독 후보자를 추천받아 3차례 회의를 거쳐 3명으로 후보를 압축했으며 27일 오후 3시 마지막 청빙위원회 회의를 통해 2명을 확정하고 광주시장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지 전 단장이 광주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공석중인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후보에 오르는 등 공석인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인선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시립발레단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립발레단장으로 유력하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문예회관측은 "청빙위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예술감독 위촉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로 최씨를 사전에 예술감독으로 내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청빙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극단의 경우 최근 청빙위원회를 거쳐 후보자 2명을 확정, 현재 신원 조희중이다. 장흥 출신 소리꾼으로 남원에 자리한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역임한 유명 애(전북도 무형문화재)씨와 국립창극단

단원 출신으로 서울창극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연출가 박노훈씨가 후보다. 광주시장의 최종 위촉만 남은 상태로 8월 안에 신입감독이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오페라단 창단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오페라단은 최근 구성원 모집 공고를 냈다. 8월2일~4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으며 예술감독과 함께 운영실장, 무대감독, 기획, 홍보 등 모두 5명을 모집한다.

단원들이 뽑히면 사무실, 연습실 등 운영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며 하반기 공연 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오페라단이 창단되면 광주시립예술단체는 교향악단, 발레단 등 모두 8개로 늘어난다.

한편, 지난 4월 공연비 등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시립극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등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극단장은 지난 26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문예회관은 "현재 경찰이 재수사중이며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극단의 활동은 당분간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우리들 삶

조용환 시집 '냉장고 속의 풀밭' 출간

1998년 '시와사람'으로 등단한 나주 출신 조용환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냉장고 속의 풀밭'(시인동네)을 펴냈다. 2003년 첫 시집 '뿌리 깊은 몸'을 펴내고 10년만인 2013년에 두 번째 시집 '숲으로 돌아가는 마네킹'에 이은 세 번째 작품집은 오래 품은 시간만큼이나 깊은 시적 공력이 담겨 있다.

모두 52편의 시들은 밀도 높고 장중한 작품 세계를 견지한다. 대부분의 작품 속에 드리워진 시적 모티프는 '기억'과 연계돼 있다. 상처, 방황, 고독 등은 기억을 토대로 확장되고 집중된다.

"편견에 시달리는 냉장고가 있었다// 구시렁거리는 저 낡은 잔소리를 추방해버리고 싶었지만 냉동된 날개와 자반고등어의 포말을, 희망찬 망망대해를, 한반도 지붕을 가벼워 보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을/ 벽 한 쪽을 허물어낸다는 건 좋은 상상이 아니었다..."

표제시 '냉장고 속의 풀밭'은 간밤을 견뎌낸 냉장고 속에 관한 이야기다. 심상하고 어둡고 자라난 '풀밭'의 세계에는 오늘을 사는 이들의 외로움과 열망, 쓸쓸함이 존재해 있다. 냉장고를 매개로 시적 상상력을 펼쳐내는 솜씨가 만만치 않다.

조 시인의 시편들은 서정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 삶이라는 모습으로 수렴된다. 해설을 쓴 이성혁 평론가는 "그의 시를 읽으면 목직함 느낌을 받는다. 나아가 그의 시를 읽을 때 숨이 막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시 한 편 한 편에 전 존재를 투여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시인의 시가 한국 시단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아쉽고 아까운 일이다"라고 평한다.

표제시 '냉장고 속의 풀밭'은 간밤을 견뎌낸 냉장고 속에 관한 이야기다. /박성천기자 skypark@



이다. 심상하고 어둡고 자라난 '풀밭'의 세계에는 오늘을 사는 이들의 외로움과 열망, 쓸쓸함이 존재해 있다.

"온전한 관계 맺을 수 없게 하는 사회"

성보경 첫 번째 소설집 '국민교육헌장' 펴내

현대인들은 남모를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 작가는 억압된 사회구조와 개인의 인생사에서 비롯된 상처의 원인을 탐색하는 존재다.

제5회 목포문학상 신인상 수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성보경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 '국민교육헌장'(문학들이)이 출간됐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특유의 현장감 넘치는 문체로 우리 사회 소외된 이들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성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새벽별 보고 일하러 갔다가 저녁별 보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으며 "현장에서 흐르는 땀을 주체하지 못해 소금을 먹으며 일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상처를 지니고 있다. 포장마차에서 상추튀김을 만들어 팔거나(상추튀김), 갑자기 부모가 죽고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내거나(살품, 안젤라), 질투심으로 젊은 수형감사를



유혹하는('오리 발, 날아오르다') 등 저항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과 아픈 상처에 휩싸여 있다.

표제작 '국민교육헌장'은 '유도화기 핀 여름'과 '쌍벽을 이루는 작품이다.

이 소설들은 청소년 시절에 겪은 압축한 유년경관을 복기형식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인 '나'와 우리들이 겪은 삶의 삽화는 역사적 서사보다 강렬하게 독자를 끌어들이는다.

전철희 문학평론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작가는 타인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비판하고, 그 원인이 사회적 구조에 있음을 밝히려 한다"고 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5·18' '4·19'...광주 역사축제 활동가 양성

8~11월 매주 토요일 교육

각종 역사축제와 문화예술 축제에서 실무자로 활동하는 '광주 역사축제 활동가' 양성 과정이 개설된다.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역사인 의병운동, 학생독립운동, 4·19,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행사와 문화·마을축제 현장에서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행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실무 활동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최철)는 이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광

주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광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현재 교육이 진행중인 학생독립운동 해설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특화된 '광주사랑 시민활동'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생들에게는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1929.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514-192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신·문·지 프로젝트' 교육생 30명 모집

광주문화재단 문화기획자

내달 7일까지 이메일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광주 신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2017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신·문·지 프로젝트(이하 지역문화전문인력사업)'에 함께 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사업'은 지역의 인력 자원을 발굴해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올해 '2017 지역문화전문인력사업'은 '신나는 문화기획으로 지역을 바꾸자'는 의

미의 '신·문·지 프로젝트'로 참신한 기획을 통해 생동감 있는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개인별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전라도 골목마실(마을, 골목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획)▲프로듀스 빛고를(지역 유희공간 활용)▲무등 파수꾼(지역 특화 자원 활용)▲5월의 광주(지역 역사성 반영) 등 4가지 분야별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7일 오후6시까지 이메일접수(culture062@naver.com)하면 된다. 문의 062-670-746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리고 휴식도 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